

# 서불대, 학내분규 종식 선언

## 법원 조치따라 제적생 35명 복적...前 학생회장은 고소중

35명 제적 사태를 맞았던 서울불교대학원대학(이사장 지옥, 이하 서불대)의 학내분규가 일단락됐다. 서불대 복적생 35명 전원은 12월 2일 '서울불교대학원대학과 학교법인 보문학원에 드리는 사과문'을 내고 학내분규 종식을 선언하고 새 출발을 다짐했다. 학생 측 가져분신청(2008카합 1408)의 법원 조정에 따라 발표된 사과문에서 복적생들은 "학내문제를 외부에 노출시켜 언론과 국가기관 및 불교계, 관련 학회 등에 학교에 대한 편향적 인식을 유도하고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재단 측의 학교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에 협력하고 면학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을 부처님 앞에 약속드린다"며 끝을 맺었다. 법원 조정 합의문에 첨부된 학생 측 시행세칙은 △총장대행에 사과 △극작사 참회법회를 통한 이사장 지옥 스님에 대한 참회 △교계 언론 등 외부단체에 학내분규 종식과 학교 교복귀 발표를 알리는 사과문 공교 등이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제적을 철회하고 행정적으로 가능한 한도 내에서 수업일수를 인정해 보충수업을 실시하게 된다. 김영란 총장 대행은 "법원 조정에 따른 합의사항을 학생 측이 충실히

이행한 것을 확인 후 복적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학생들의 사과문처럼 학내 갈등이 종식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김 총장 대행은 법원 조정을 며칠 앞두고 문인숙 前 학생회장을 업무방해로 고소했다. 학생들을 선동해 등록금을 공탁하게 했다는 이유다. 김영란 총장 대행은 "법원조정과 학생회장은 별개"라며 "학생회장이 고소건은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명을 요구한 학생은 "학생들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전 학생회장에 대한 고소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김영란 총장 대행을 이해할 수 없다"

며 한탄했다. 더욱이 김영란 총장 대행은 문인숙 前 학생회장과 같은 전공 주임교수로 안타까움을 더한다. 김 총장 대행의 학생 고소건에 대해서는 지난 6월 해임된 황윤식 총장에 대한 법원판결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지적이 많다. 황 총장 해임 사유 중 하나인 학생 선동과 맞물려 있지 않겠냐는 것. 황윤식 총장 해임에 대한 법원 판결은 서불대 사태의 새로운 뇌관이다. 법원 조정에 학생들은 학내분규 종식을 선언했다. 학내 구성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학교 측의 결단이 이어질지 기대한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 종교편향 극복하고 생명·평화·자비의 길 걷다

2008년 불교계가 추구한 대표 화두는 '종교편향'이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고위 공직자들의 종교 편향이 이어지자, 불교계가 거세게 반발하며 한바탕 야단법석을 떨었다. 이런 가운데, '생명평화탁발순례단' '생명의 강을 모시는 사람들' '오체투지순례단'에 동참한 스님들은 종교의 벽을 넘어 사람과 지인이 돌이 아닌 신토불이(身土不二)의 도리를 운운으로 실증했다. 불교계 최초의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 창립을 계기로 소액기부운동에 대한 관심과 보시문화가 확산되기도 했다. '불혹'을 맞은 군불교는 군종특별교구를 중심으로 군포교원력을 다진 한 해였다. 해외에서는 중국내 티베트사치구에 유혈사태가 발생해 티베트불교가 큰 시련을 겪기도 했다.

**#종교 편향 반대 한 목소리=** 6월 중순 국토해양부의 대중교통 안내 시스템 '알고가'에서 주요 사찰 표시가 빠지고, 여중수 경찰청장 사진이 개신교 전도집회 포스터에 게재된 데 이어 경찰이 포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탄 차량을 과잉 검문하면서 불교계의 분노가 폭발했다. 8월 27일 서울 광장에서 연 '헌법파괴·종교차별 이명박 정부 규탄 범불교대회'에는 20만여 불자들이 운집했다(사진 아래). 11월 1일 대구경북 범불교대회, 11월 15일 광주 전남 범불교대회(11월 15일) 등 불교계 항의는 계속됐다. 정부와의 갈등은 대법원의 사과와 정부·국회의 종교편향방지법 약속, 이 정장의 사과 방편을 계기로 사실상 봉합됐다.

**#생명·평화 위해 나선 구도자들=** 도법 스님이 이끄는 생명평화탁발순례단은 2004년 3월 1일 지리산 노고단을 떠난 지 5년 만에 12월 14일 출발지인 노고단에서 대장정을 회향했다. 이에 앞서 도법·수경 스님은 5대 중단 성직자들과 함께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반대하며 '생명의 강을 모시는 사람들' 순례단을 결성, 2월 12일부터 100일 동안 대운하 예정지 1300km를 도보 순례했다. 이어 수경 스님은 문규현·전종훈 신부와 함께 9월 4일부터 두 달 동안 '사람의 길, 생명의 길'을 찾아 오체투지 순례를 해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냈다.

**#나눔문화 확산=** 불교계 최초의 공익법인(재)'아름다운동행'이 9월 30일 창립식(사진 위)을 갖고 공식 출범함으로써 소액기부 캠페인 중심의 나눔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360원 정도의 소액을 자동이체를 통해 매일 기부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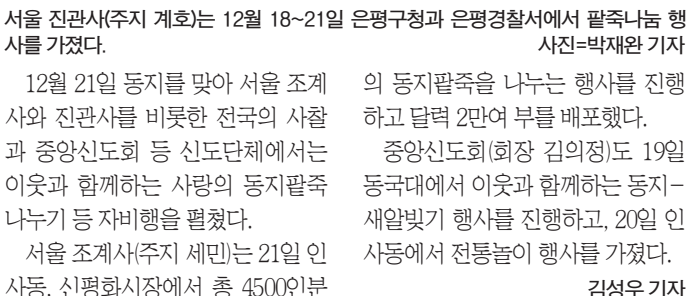


'365 운동', 저금통 모금 운동인 '네모의 꿈 만들기' '나눔씨앗뿌리기' 등을 통해 기부문화가 달라지고 있다. 실제로 극심한 불황에도 불구하고 주요 종단의 복지성금은 기업 기부금 50% 내외, 개인 기부금 10% 정도로 크게 늘었다. **#'불혹' 맞은 군불교=** 군승 파송이 올해로 40주년을 맞았다. 군종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51년. 불교는 그 뒤 17년이 지난 1968년에야 제1기 군승 후보생 5명을 최초의 군법사로 배출했다. 현재 군법사는 140여명으로 늘어났고 군법당은 400여 곳에 이르고 있다. 군내 불자 수는 2007년 말 현재 11만4000여명으로 늘어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뤘다.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일명= <불교군종사 군승 40년사> 발간 및 통일가사 제정 등을 계기로 군 불교 중흥을 다짐하고 있다. **#티베트 사태는 여전히 '진행형' =** 지난 3월 티베트에서 독립 시위가 벌어지자 중국 정부가 무력진압에 나서 유혈사태가 벌어졌다. 200여 명이 숨지고 수 천여 명이 체포되는 현대판 법난(法難)이 발생하자 세계인들은 북경 올림픽을 앞두고 보이콧 운동을 펼쳤지만, 중국은 경제력을 앞세워 비난 여론을 잠재웠다. 이에 따라 11월 티베트 민족지도자 대표자 회의가 30여 년 만에 열려 그간 고수해온 '중도 노선'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우 기자

# "이웃과 함께 사랑의 팔죽 나눠요"

조계사·진관사·중앙신도회 등 전국서 팔죽 나누기

서울 진관사(주지 계호)는 12월 18~21일 은평구청과 은평경찰서에서 팔죽나눔 행사를 가졌다. 12월 21일 동지를 맞아 서울 조계사와 진관사를 비롯한 전국의 사찰과 중앙신도회 등 신도단체에서는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의 동지팔죽 나누기 등 자비행사를 펼쳤다. 서울 조계사(주지 세민)는 21일 인사동, 신평화시장에서 총 4500인분의 동지팔죽을 나누는 행사를 진행하고 달력 2만여 부를 배포했다.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도 19일 동국대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동지-새알빚기 행사를 진행하고, 20일 인사동에서 전통놀이 행사를 가졌다. 김성우 기자



# 본각 스님·반영규 거사 대원상 선정

진흥원, 제6회 대원상 수상자 발표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민병천)은 12월 19일 신라호텔에서 제130차 이사회의를 열고 제6회 대원상(大圓賞) 수상자를 선정 발표했다. 대상은 승가 교육에 이바지한 본각 스님(중앙승가대)과 불교음악가 반영규 거사가 선정됐다. 특별상에는 종은범종경소리(대포 성행)와 김형근(미주 <현대불교> 발행인)씨, 윤소희(부산대 국악학과 강사)씨가 뽑혔다. 올해 처음 신설된 불교진흥프로그램 아이디어 공모상에는 이지



태고보우 국사 현장기념비 제막법회 성료

태고보우 구법(求法) 현장기념비 제막법회가 12월 15일 중국 절강성 천호암에서 봉행됐다. 태고종(총무원장 운산)과 중국 절강성 주정부 공동주최한 이번 법회는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승정원장 남파 스님, 중국 절강성 호주시 묘사진인민정부 왕회강 등 한·중 불교학계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됐다. 천호암은 태고보우 국사가 청공 선사로부터 입제선맥을 계승 받은 사찰이다. 김진성 기자

진공청소 물걸레청소 구석청소 **마미로봇이 한방에 다 한다**

힘 들이지 않고 청소 하는 물걸레 로봇청소기 **마미로봇**

대리점 문의 / 제품 구입 1588-7402

가격 : ₩ 275,000

www.mamirobot.co.kr

Mamirobot (주)경민에카트로닉스 NAVER

▶ 이런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절 수행 시 • 성지 순례 산행 시 • 장시간 공부·운전·운동 피곤 시 •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장인

# 아마따茶로 성불수행의 기운을 돋우십시오!

다수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함유된 아열대지방의 허브 마테(Yerba Mate)는 정신과 육체의 기운을 돋우고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어 세계 여러 분야에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아마따茶'로 마테(Yerba Mate)가 주는 건강을 누리세요.

아마따란? 팔리어로 '검은' (달고 깨끗한 이슬을 뜻함이다.)

무설탕  
무색소  
무방부제

**1566-6289**

1BOX 24개입 48,000원 판매처: 유기마켓(주) 농협 601139-51-006748 코인 580301-04-091374

파라과이와 아르헨티나의 원시부족인 '과리니족'에 의해 발견된 허브. 과리니족은 피로회복과 숙면을 취하는데 마테를 사용했습니다. 세계 여러나라에서 마테는 현대인의 건강과 명상을 공유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